

## 조선시대 우의(雨衣) 연구

박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Raincoats in Joseon

Sun Hee Park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2. 12. 17, 심사(수정)일: 2013. 2. 15, 게재확정일: 2013. 3. 10)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ge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raincoats in Joseon by searching through historic records: the Annals of Joseon(朝鮮王朝實錄), personal or official records, paintings, etc. The time range of the research covers the entire period of Joseon. There were two prime types of raincoats: *Sau*(蓑衣), a cyperus coat, and *Yusam*(油衫), an oilcloth coat. The study proceeded as follows: 1) Identifying the people who wore the coats as well as the time period, 2) Figuring out the shapes and materials of those raincoats, 3) Postulating the reasons for the upward trend in popularity of a certain type as well as the eventual downward trend. Those research efforts revealed the following: 1) In the early Joseon, from royals to commoners, people wore *Sau*. But as time passed valuation about *Sau* might have become degraded. Eventually it became regarded as a farmer's smock in the 19th Century. 2) *Yusam* might not have been worn in the early Joseon. It was developed and spread after the middle of 17th Century. It was for soldiers and nobles, especially travelers, but by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it was also used by commoners. 3) *Sau* was made of cyperus, but *Yusam* was made of oiled paper, cotton or silk. Those shapes were similar to a Western cloak.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led to following conclusions: 1) Around the middle of Joseon, people started to wear *Yusam* after the introduction of a Chinese version of it. 2) *Yusam* might have become popular in Joseon because of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At that time, people had pride in their culture and thought that real experiences and travels were important. 3) As people became fond of *Yusam* more, then *Sau*'s popularity fell.

Key words: cyperus coat(사의), Joseon's raincoat(우의), oilcloth coat(유삼)

## I. 서론

눈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 착용하는 장비는 조선시대 문헌에 우장(雨裝), 우비(雨備), 우구(雨具), 우의(雨衣), 우복(雨服), 우모(雨帽) 등 '비[雨]'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런 용어들이 때로는 사람이 착용하는 복식 외에 가마, 깃발, 무기 등을 위한 장비를 지칭하기도 했는데, 비 올 때 착용하는 것이라는 용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재료나 형태는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재료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고 복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의(蓑衣)와 유삼(油衫)이 있다. 사의는 '도롱이', 유삼은 '비, 눈을 막기 위한 기름에 걸은 옷'으로 설명된다.

비 올 때 착용한 복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중국 사료에 나타난 사의와 유삼 기록을 통해 고대 중국 우의(雨衣)의 종류와 발전과정을 고찰한 것<sup>2)</sup>이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通信使)가 우장으로 착용한 유삼을 설명하면서 18세기 전후 유삼의 용례와 형태를 살핀 것<sup>3)</sup>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반을 범위로 하여 진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사의와 유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사의와 유삼의 착용 시기 및 착용자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재질 및 형태에 관련된 기록을 통하여 그 형태를 유추하며, 회화 자료를 통해 착용 모습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의 및 유삼 착용이 확산하고 쇠퇴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유삼(油衫)

### 1. 문헌에 나타난 유삼 착용 관련 기록

문헌에는 유삼 또는 유의(油衣)로 표현되었으며, 눈비와 함께 언급되어 눈이나 비가 올 때 걸치는 비옷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sup>4)</sup> 유삼 착용 관련 기록은 17세기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18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 1) 18세기 이전 유삼 착용 사례

18세기 이전 조선의 문헌 자료에서 유삼 착용과 관련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조선왕조실록』에서 2건의 기록을 볼 수 있다. 1521(중종 16)년의 기록 중 세자 책봉의 칙서를 가져온 명(明) 사신과 관련된 내용에 유삼이 나타났다. 부사(副使)가 이동 중에 비가 와서 우구(雨具)를 찾았으나 유삼을 가진 사람이 미처 듣지 못하여 가져오는 것이 늦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를 묻지 말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1627(인조 5)년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금(後金:淸)의 사신 유해(劉海)가 조선에 요청한 물품을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 아뢰는 장면에서 언급되었다. 이 때 봉사(棚砂), 주중립(朱鬢笠), 필묵(筆墨), 사향(麝香) 등은 각각 상의원, 호조, 내의원을 통해 준비할 것이나 유삼은 얻을 곳이 없으니 부응할 수 없다[油衫則無得處, 不得應副矣]고 했다.<sup>5)</sup>

여기서 '유삼은 얻을 곳이 없어 부응할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삼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요구한 유해는 정묘호란 후 강화조약을 맺기 위해 온 사신이었던. 당시 화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들을 오랑캐로 보아 사신이 아닌 호차(胡差)로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승전국에서 온 사신이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왜란과 달리 전쟁이 경기 이북 지역에 한정되었고 기간도 짧았으므로, 전국의 물자가 고갈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 국내에서 유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51(효종 2)년 『전객사일기(典客司日記)』에 중국의 유삼을 언급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오(端午)에 진상하는 사의(蓑衣)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중국 제도를 따르는데 유독 사의는 옛것을 그대로 따라 변하지 않아 실제 사용하는데 이롭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편하고 자 하면 마땅히 변통해야 하는데, 우비의 가볍고 편

하며 견고한 것으로 중국 유삼만한 것이 없다[如欲便宜變通, 則雨備之輕便永固, 莫如中國油衫之制]<sup>6)</sup>고 언급했다. 중국의 경우 춘추시대에 이미 식물성 오동유(梧桐油)를 직물에 발라 건조시켜 방수성 유포(油布)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의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진(晉) 두예(杜預)의 『집해(集解)』에 의하면 우의는 유견(油絹)으로 만들었으나 나중에 유지(油紙)로 대신했다. 유의가 처음 사서에 나타난 것은 『수서(隋書)』이며, 당대(唐代)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명대(明代)에 특히 유행하였는데 조선 유포가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sup>7)</sup> 그러나 『전객사일기』의 내용을 볼 때, 당시 조선에서는 유삼보다 사의 착용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유삼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착용을 제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선에서는 유삼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17세기 중반까지 실제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 비중이 매우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에 나타난 두 기록 모두 중국에서 온 사신이 중심인물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유삼을 실제 착용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닌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2) 18세기 이후 유삼 착용 사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유삼 착용 관련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개인 문집, 국정 관계 자료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실제 조선에서 직접 유삼을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났으며, 착용자의 신분도 다양했다.

유삼 관련 내용은 여행을 기록한 문집에서 다수 찾을 수 있어, 사대부들이 여행할 때 이를 지참하고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익(李瀼, 1681-1763),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 사대부의 시에 유삼이 등장하며, 특히 청이나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신 또는 그 일행이 기록한 문집에 많이 나타났다. 청에 다녀온 사람들의 글을 보면, 1712(숙종 38)년 동지사 겸 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였던 김창집(金昌集)의 자백군관(自辟軍官)으로 북경에 다녀온 김창집의 아우 김창업(金昌業)이 쓴 『연행일기(燕行日記)』에 도중

에 눈을 만나 유의를 입었다<sup>8)</sup>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791(정조 15)년 사행단의 일원으로 청에 다녀온 김정중(金正中)이 기록한 『연행록(燕行錄)』에는 다행히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눈비를 막을 유의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다<sup>9)</sup>고 했다.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의 기록으로 1748(영조 24)년 종사관 조명채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인의 우비는 다 기름을 먹여 옷으로 만든 것[着油作衣]이고, 우리 일행은 다 우리나라의 유삼을 입었다고 했다. 1719(숙종 45)년 세술관 신유환이 『해유록』에 일본의 우의는 견(絹)이나 종이로 삼수(衫袖)가 있는 단의(單衣)를 만들어 푸른 그림이나 칠을 했다[靑綠畫漆]<sup>10)</sup>고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매 있는 의복 형태의 일본 우비와 조선 유삼은 다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봉사일본시문견록』에는 가마를 타고 가므로 유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비가 거세어 가마에 우비가 있으나 곳곳이 새어 의관이 모두 젖었다고 했다. 이에 일행 중의 가져온 것을 겨우 찾아 몸이 젖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명(傳命) 후 돌아오는 길에도 때마침 비가 내려 사신은 우산을 받고 유의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만기요람(萬機要覽)』 중 신사(信使)의 반전(盤纏) 조항과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의 경외로수(京外路需) 조항 중 각도(各道) 복정(卜定) 물품에 적유삼(赤油衫)이 포함된 것<sup>12)</sup>도 볼 수 있다. 통신사 사신행차로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 개인이 우비로 유의를 가지고 간 사례도 있을 것이나, 공식적으로 지급한 예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들도 유삼을 사용했다. 1710(숙종 36)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나타난 금군(禁軍)의 유삼을 다시 마련해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sup>13)</sup>, 1719(숙종 45)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중 금군들의 갑주와 유삼이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sup>14)</sup>, 『일성록(日省錄)』 1778(정조 2)년 기록에서 군병의 비옷 마련과 관련하여 두꺼운 종이[厚紙]로 유의를 만들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한 것<sup>15)</sup>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1793(정조 17)년의 기록을 보면 장용영(壯勇營)의 관사를 새로 짓고 각

중 군물을 새로 갖추거나 보수한 내용 중 유삼이 포함되어 있다. 161벌을 새로 만들고 1,237벌을 보수<sup>16)</sup>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당한 양이 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기요람』 중 용호영, 훈련도감, 금위영, 총융청, 어영청의 군기(軍器) 조항에 지유삼(紙油衫), 목유삼(木油衫), 목면유삼(木綿油衫) 등이 있다. 그 중 용호영의 군병 기계(軍兵器) 조항에서는 유삼을 금군 갑주, 환도, 교자궁(校子弓), 편곤(鞭棍)과 함께 연한에 따라 관에서 만들어서 지급하며, 연한 안에 파손 또는 분실하면 처벌하고 변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sup>17)</sup> 군용품으로 사용하며 귀히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 말에는 이미 유삼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착용이 일반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1784(정조 8)년 『일성록』에 ‘용복(戎服)을 한 자는 유삼을 입을 수 없고 반드시 사의(蓑衣)를 입는 것이 법인데, 지금 사의를 입은 자를 보지 못했다’<sup>18)</sup>고 했다. 그리고 1795(정조 19)년 실록에 동지사 서장관 심흥영(沈興永)이 하란(荷蘭:네덜란드) 사람의 복식을 묘사하면서 우리나라 유삼에 비유한 것<sup>19)</sup>을 볼 수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비유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에서는 유삼의 형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삼 착용은 조선 말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82(고종 19)년 임오군란 당시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이 환도, 조총과 함께 유삼을 탈취했다<sup>20)</sup>는 기록이나, 『하재일기(荷齋日記)』 중 1892(고종 29)년 일기에서 유삼 1건을 15냥에 구입한 내용<sup>21)</sup>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 혼마 규스케[本間九介]가 1894년 일본의 니로쿠신보[二六新報]에 연재한, 조선을 여행하고 쓴 글을 엮은 책 『조선잡기(朝鮮雜記)』에서도 비울 때 여행자의 차림으로 유삼<sup>22)</sup>이 거론되었다. 『하재일기』의 지은이는 궁궐과 관청에 각종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貢人)이며, 『조선잡기』의 ‘여행자’도 양반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니 상민(常民)도 해당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19세기 말에는 상민의 유삼 착용도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삼 착용자는 사대부에

서 군사, 일반 상민에 이르기까지 신분범위가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1냥이 현대의 약 7만원에 해당한다<sup>23)</sup>고 볼 때, 『하재일기』의 유삼은 약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삼의 재질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유삼의 제작

### 1) 재질 및 형태

유삼은 종이나 목면 바탕에 기름을 먹여서 만들며, 종이로 만든 것은 지유삼(紙油衫), 목면으로 만든 것은 목유삼(木油衫)이라고 했다. 지유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급에 속하는 목면유삼은 청색 목면으로 만들었다. 비옷에 바르는 기름으로는 유동(油桐)나무 기름인 동유(桐油)나 들기름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수력이 훨씬 뛰어난 동유를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sup>24)</sup>

유삼의 형태 관련 기록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와 1795(정조 19)년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청장관전서』에서 갖의 폐단을 지적하는 중 우리의 유의(油衣)는 치마(裙) 같이 하여 머리에 써서 손으로 잡는 것이고, 여진(女眞)의 것은 소매와 옷깃이 있는 형태로 기록했다.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부득불 끈(紐)을 풀고 손으로 갖 좌우를 붙들어야 한다<sup>25)</sup>고 한 것으로 보아, 묶는 끈이 있는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95(정조 19)년 실록에는 동지사 서장관이 하란 사람의 복식을 묘사하며 유삼에 비유한 것이 있다. 이때 붉은 색 모직물[紅氈]로 우리나라의 유삼 같은 것을 만들어 전신(前身)을 가렸는데 손으로 안에서 잡아 가슴 앞에 대었다고 했다.<sup>26)</sup> 이는 네덜란드인들의 망토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마 규스케는 『조선잡기』에 유삼은 일본의 갖파[合羽]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림 1><sup>27)</sup>은 에도[江戸]시대 갖파를 입은 조닌[町人]을 재현한 것이다. 갖파는 모모야마[桃山]시대 스페인 선교사 등이 착용한 외투[Capa]를 모방한 것으로, 안에 기름막인 종이[桐油紙]를 넣어 만들었다.<sup>28)</sup> 이상으로 볼 때 유

삼의 형태는 소매가 없으며, 치마나 서양 망토의 모양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그림 1> 에도시대 갓파를 입은 조닌,  
- 原色日本服飾史, pp. 230-231.

유삼은 보관과 휴대가 편리하도록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1722(경종 2)년 실록과 『담헌서(湛軒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22(경종 2)년 실록에는 역모 조사 중, 자금을 유삼 주머니[油衫囊]에 넣어 전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sup>30)</sup> 홍대용의 『담헌서』 중 연기(燕記)는 1766(영조 42)년의 여행을 기록한 것인데, 심양을 떠나오면서 유삼을 놓아두고 왔기에 찾아오게 하였더니, 유삼주머니

[衫蓆]만 내어주었다고 했다.<sup>31)</sup> 탁(橐)은 전대(纏帶), 대(蓆)는 자루·부대(負袋)·포대(包袋)·가방·전대의 의미를 가진다. 전대는 무명이나 베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매기도 하는 자루로 풀이 되니, 유삼 담는 주머니는 긴 자루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2)</sup>

## 2) 제작방법

유삼을 만드는 방법은 1766(영조 42)년 유중림(柳重臨)이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간행한 농사요결서(農事要訣書)인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명주유삼[紬油衫]만드는 의주(義州)의 민간법

명주 26자[尺]를 8폭으로 나누되, 1폭마다 길이 3자 2치가 되게 한다. 등 뒤[背後] 2폭은 전폭(全幅)을 쓰고 좌우 폭은 모두 비스듬히 찢어 붙인다. 앞의 옷깃[前襟]은 비스듬히 반 폭[半骨]으로 1자 5치 되게 나누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이어대고 뒤쪽 바람막이[後風遮]는 전폭 5치를 쓴다. 삼씨기름과 들기름 각각 5홉을 서로 잘 섞어 입에 머금고 고르게 삼주(衫紬) 위에 뿜어낸 다음 손 가는 대로 고르게 비벼 기름종이로 싸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방에 놓아둔다. ...중략... 기름을 바르는 것은 대개 10여 차례 해 준다. ...중략... 처음부터 끝까지 기름 바르기를 많게 15~16번까지 해주면 비로소 상품품이 된다. ...중략... 삼(衫)을 만들 때에 깃 길이[領長]는 1자 6치가 되게 하고 삼승포(三升布)



<그림 2> 유삼, 20세기  
-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p. 102.

반쪽을 쓴다. 이것은 의주사람 강해동(姜海東)의 만드는 방법이다. 비옷 만드는 첫째가는 방식이다.<sup>33)</sup>

유삼을 치마형태로 볼 때 여기 나타난 것[領]은, 이불의 각 부분을 길·깃·동정으로 부르는 것과 비교하여, 치마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증보산림경제』에는 명주를 재료로 유삼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무명, 종이를 재료로 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물, 특히 종이에 수차례 기름을 먹이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림 2><sup>34)</sup>를 보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장지로 만든 이 유삼은 어깨에 걸칠 때 몸에 잘 붙도록 표면 전체에 마름모꼴로 주름을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 3. 회화에 나타난 유삼

나귀를 타고 길 떠나는 모습을 그린 기려도(騎驢圖)에서 유삼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 파교기려(灞橋騎驢)는 기려도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당대(唐代)의 정계(鄭綰)와 맹호연(孟浩然)의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눈 덮인 산과 매화 그리고 시흥을 상징하는 파교(灞橋)가 등장하며, 화면 속 인물은 극기를 행하는 군자이자 시흥

의 표본인 문사로 해석된다.<sup>35)</sup> 이 주제를 표현한 <그림 3><sup>36)</sup>은 『고씨화보(顧氏畫譜)』에 실린 명(明) 후기 화가 장로(張路, 1464-1538)의 작품이며 <장로본(張路本)>으로 불린다. 나귀를 탄 사람은 모정(帽頂)이 둥근 모자를 쓰고 온몸을 감싸는 포를 두른 모습이다. 포는 소매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망토형인 것으로 보이며, 주로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하는 파교기려도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삼을 착용한 모습으로 추측된다.

『고씨화보』는 1603년에 제작된 산수관화집으로, 발간된 지 수 년 만에 조선에 들어왔고, 이와 함께 당시 중국의 회화 흐름이 조선에 유입되었다고 본다.<sup>37)</sup> <그림 4><sup>38)</sup>는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파교심매도(灞橋尋梅圖)>인데, <그림 3>과 비교해보면 인물이 향하는 방향이 반대일 뿐, 나귀를 탄 인물의 차림과 시흥의 차림 및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그린 것이나 우리의 차림새로 재해석 한 것이 아니라, <그림 3>의 <장로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기려도에서는 화면 속에 고사(古事)보다는 자연과 혼연일치 된 문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자연과 동화된 일반적 '유람'을 목적으로 하며, 나귀는 그저 산천을 유람하여 그것을 즐기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돕는 도구로 사용되어, 소박한 행려의 기능이 부



<그림 3> 유삼, 張路, 騎驢圖(부분)  
- 顧氏歷代名人畫譜 第4冊, 九十二



<그림 4> 유삼, 심사정, 파교심매도(부분)  
- 조선후기국보전, p. 35.



〈그림 5〉 유삼, 김홍도, 기려행려  
- 濶松文華, 제68호, p. 111.



〈그림 6〉 유삼, 정선, 설평기려  
- 濶松文華, 제66호, p. 41.

각되었다. 이는 당시 산수기행의 풍조가 확산되고, 그 절경을 꼼꼼히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는 문화가 유행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sup>39)</sup> 즉,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은 경향이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중국풍 산수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화면 속 등장인물이 중국 의복을 벗지 못하던 것과 달리, 진경산수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시를 살던 조선인의 모습 그대로라고 평가된다.<sup>40)</sup> 정선(鄭敼, 1676-1759)과 김홍도(金弘道, 1745-?)의 작품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sup>41)</sup>는 정선의 〈설평기려(雪坪騎驢: 눈 쌓인 들에서 나귀를 타다)〉이다. 정선은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의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은 그 중 하나이다. 정선은 1740(영조 16)년 양천 현령으로 부임

했는데, 화면 속 나귀가 있는 곳은 지금의 강서구 양동동의 옛 양천현 현아 입구 부근이고, 멀리 보이는 산은 우장산에 해당하는<sup>42)</sup> 진경산수화이다. 따라서 나귀 탄 인물은 정선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6〉<sup>43)</sup>은 김홍도의 〈기려행려(騎驢行旅: 나귀 타고 길 떠나다)〉이다. 그림 오른쪽 윗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진여의(陳與義)의 행려시(行旅詩)가 적혀있어, 화면 속 풍경에 비가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그네 세월은 시권(詩卷) 속에 있고  
살구꽃 소식은 빗소리 가운데 있네

客子光陰詩卷裏  
杏花消息雨聲中

나귀를 탄 인물과 함께 옆에 시동이 있는 구조는

앞에서 본 『고씨화보』〈장로본〉의 예와 유사하나, 시 등의 모습이 머리에 관모를 쓰지 않고, 종아리에 행전을 두르고 지계를 진 것으로 표현되어 조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속 나귀를 탄 인물들은 모두 소매 없이 온몸을 휩싸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데, 두 작가 모두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는 화풍을 가지고 있던 것을 생각할 때, 18세기경 유삼의 착용 모습으로 생각된다.<sup>44)</sup>

### Ⅲ. 사의(蓑衣)

#### 1. 문헌에 나타난 사의 착용 관련 기록

도롱이로 부르는 사의는 문헌에 사(蓑), 사의(蓑衣·蓑衣), 밧석(襜褕) 등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사의의 기록은 가난한 백성의 차림으로 등장하는 예<sup>45)</sup>도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사대부 이상의 신분에서 착용한 예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빈번하게 등장하나 16세기 말 17세기 중반을 지나며 등장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18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노동복 이외 용도로 이용된 사의 착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 1) 18세기 이전 사의 착용 사례

조선 초기 사의의 용도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사례는 왕실 하사품이다. 실록을 살펴보면 1422(세종 4)년에 조말생, 김익정 등에게 유안룡(油鞍籠), 안갑(鞍匣)과 함께 사의를 하사한 것을 비롯하여, 1457(세조 3)년 예조판서 홍윤성, 1469(예종 1)년 서평군 한계희 등이 사의를 하사 받았다. 성종 때에는 특히 그 수가 많아 『훈세평화(訓世評話)』,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등 책을 지어 올린 경우, 순찰사(巡察使), 도원수(都元帥) 등의 직을 맡아 지방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10 여 차례 하사되었다. 이후 연산군과 중종 때에도 도승지, 소임을 마치고 돌아온 도체찰사(都體察使), 승정원과 홍문관의 관원, 사직을 청하는 좌의정 등에게 하사했다.<sup>46)</sup> 그리고 국왕이 참관한 활쏘기 행사[觀射] 또는 글을 짓는 행사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상품으로서 하사된 경우도 있다.<sup>47)</sup>

국내 관리들에게만 하사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선물한 경우도 눈에 띈다. 사신에게 사의를 선물한 이유는 1464(세조 10)년 실록 내용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명(明) 사신이 개성에 다다라 국왕의 안부를 묻는 예를 행하자, 신숙주는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인정상 주는 약간의 물건을 가지고 사례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지석(油紙席), 도자(刀子), 마장(馬裝), 사의, 인삼, 작설차와 같이 노상(路上)에서 소용되는 물건이 좋을 것이라 했다.<sup>48)</sup> 사신에게 사의를 포함한 선물을 전달한 경우는 세조와 성종 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나타났으며, 그 중에는 선물을 받지 않거나, 다른 선물은 받지 않고 사의와 입모만 받은 경우도 있었고, 사신이 선물로 사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sup>49)</sup>

이렇듯 왕실에서 조정 공신이나 명의 사신에게 내리는 선물로 활용할 정도로 사의를 귀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1463(세조 9)년 기록에는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나있다. 명이 아닌 북방 민족으로부터 사신이 왔을 때, 그들도 국왕이 친림하여 실시하는 수렵대회[講武]에 함께 가도록 하자, 승정원에서는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할 때에는 활과 화살, 사의를 내려 주는 것이 예(例)라고 고했다. 세조는 이런 물품을 준 뒤 그들이 이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여기고 매번 요구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 때 신숙주는 어가를 따를 때 먼저 활을 내리고, 비가 오면 사의를 주도록 건의했다. 그렇게 한다면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게 되어 으레 주는 것으로 여기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sup>50)</sup>

두 번째로 사의는 진상품의 하나였다. 하사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바친 경우 또는 왕실에서 명을 내린 경우가 있었으며<sup>51)</sup>,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바치기도 했다. 1413(태종 13)년에는 각도에 사의를 바치도록 명하고, 이를 연례(年例)로 삼았다.<sup>52)</sup> 임진왜란 직후인 1603(선조 36)년에는 사의를 단오에 진상하는 물품으로 거론하며 어느 도가 진상했는지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강원도와 하삼도(下三道: 충청,전라,경상도)에



서 단오에 진상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4도가 돌아  
가며 단오에 2벌[領]씩 바치도록 했다.<sup>53)</sup>

그런데 이 진상이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542(중종 37)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기도가 진상할 차례인데 늦추고 있어 독  
촉했다 하고, 담당 마을은 마련된 것이 없어 구입하  
려 했으나, 물건을 가진 자가 값을 올려 사의 하나  
값이 수백 필에 이르렀다 했다. 게다가 당시 경기 백  
성의 굶주림이 극심하였으므로 가능하면 진상을 면  
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그 결과 전의 것이 변색되고  
왕실 물품 관리소[內藏]에도 남은 것이 없으나 백성  
의 폐해를 고려하여 진상하지 않도록 조치했다.<sup>54)</sup> 수  
백 필에 달하는 가격은 당시 기근과 품귀로 인한 가  
격폭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1603(선조 36)년에  
도 평소 사의 한 벌 값이 배 40필이나 된다<sup>55)</sup>는 기  
록도 있다. 또한 진상품을 훔쳐 개인의 물건으로 바  
꾸거나 뇌물로 전달한 예<sup>56)</sup>로 사의가 거론되기도 했  
다. 사의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의를 국왕이 착용했다는 것 역시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64(세조 10)년 북소(北所)가 무너  
져서 숙직하던 군사 중 사상자가 생기는 사고가 있  
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세조가 놀라 사의만 걸치고  
북문 밖으로 나갔다.<sup>57)</sup> 성종 때 사람들을 미혹한 자  
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장면에도 사의가 나타났다.  
이 때 문제가 되었던 말 가운데 꿈에 수양 대왕(首  
陽大王), 즉 세조가 나타나 여러 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 생전에 거뒀었을 때의 사의와 그릇[飯鉢] 등의  
물건을 능소(陵所)에 보내야 한다고 한 것도 포함되  
어 있었다.<sup>58)</sup> 그리고 중종 때에는 조선시대 왕의 말  
과 수레를 관리하던 내사복시(內司僕寺) 소속 관리  
가 입시하여, 거동[行幸] 할 때 으레 우구를 가져가  
야 하는데 전에 쓰던 사의[前所御叢衣]가 젖고 더러  
워졌으니 바꾸기를 청했다. 그러나 중종은 사의가 비  
록 더러워졌으나 아직 파손되지 않았으니 개비하지  
말라 했다. 이후 경기지역의 기근이 들었을 때 사헌  
부에서는 중종에게 이전에 진상 받은 사의가 입으실  
만하다면 이번에는 새로 올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  
기를 건의한 경우도 있다.<sup>59)</sup> 왕 뿐 아니라 중친들이

착용한 기록도 있다. 1445(세종 27)년에는 왕자 2명  
이 비바람이 부는 날 미복으로 모두 도롱이[蓑]를  
착용하였으며, 세조 때에는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  
되어 영월로 유배간 단종에게 보낸 물품가운데 사의  
가 포함되었다.<sup>60)</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실 하사품으로 공신들  
에게 사의를 내렸으니 사대부들도 사의를 착용하였  
을 것이다.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눈 오는 날  
씨에 손님들이 부친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때 손님은 '최·윤 두 판서[崔  
尹兩判書]'라고 기록했다.<sup>61)</sup>

오늘 귀한 분이 산장을 방문하니  
사의에는 눈이 수북 병에는 술이 가득  
십 년 만에 친한 벗을 이제야 만난지라  
새하얀 백발들이 반갑게 맞이하네

高軒此日到山亭  
雪滿叢衣酒滿瓶  
十載情親今會面  
鬢毛俱白眼雙青

## 2) 18세기 이후 사의 착용 사례

18세기 이후 실록에서 사의 관련 기록 수가 줄었  
으며, 왕실에서 공신이나 사신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754(영조 30)년에 각도에  
서 사의 바치는 것을 특별히 없애준 것이나, 1894(고  
종 31)년 거듭된 흉년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경상도  
의 폐단에 대한 시정 방법 건의 내용 중 공조(工曹)  
에 납입하는 사의를 없애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sup>62)</sup>  
등을 볼 때 19세기 말까지 사의 진상은 계속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말에 이르면 사  
의를 입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로 유삼을 입는 등 사  
의가 점차 유삼으로 대체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변사등록』 1844(헌종 10)년의 기록에 의  
하면 황제의 칙사를 맞는 의식 절차[迎勅儀註]에 비  
가 내리면 백관이 모두 사의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으  
나, 유의를 착용하지 않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사  
의와 유의 중 어떤 것을 입어도 사대의절(事大儀節)  
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발에서 입는 발석  
(撥襪)'을 임금 가까이 모시는 복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사의를 영구히 유의로 고치도록 건의하여 윤희 받았다.<sup>63)</sup> 이를 통해 19세기 중반까지 사신을 맞는 행사에서 백관이 사의를 착용하였던 것과 함께, 이 시기에 이미 사의는 노동복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의가 권농(勸農)의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sup>64)</sup>도 이와 같은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2. 사의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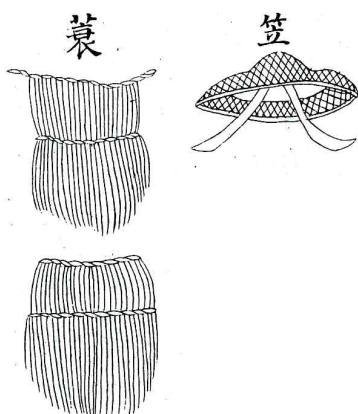
사의는 중국 사료 중 송대(宋代)의 『삼례도(三禮圖)』와 명대(明代)의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그림 7><sup>65)</sup> 및 <그림 8><sup>66)</sup>에 보이는 바와 같이 쓰개와 함께 사립(蓑笠)으로 소개되었다. 『삼재도회』에는 사의를 사초(莎草)로 만들며 ‘蓑’와 ‘莎’는 음이 같고, 사설등립(蓑蓍笠笠)은 사우구(蓑雨具) 중 가장 가볍고 편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사의가 사초(蓑草)를 엮어 만든 옷으로 비를 피하는 도구라 했다.<sup>67)</sup> 따라서 ‘蓑草’와 ‘莎草’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경우 『증보산림경제』에 우의 만드는 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비옷[雨衣], 녹사(綠蓑)를 엮어 만들거나 혹은 푸르고 가는 침[靑細葛]으로 짜 만들어 기름을 바르면 오래간다.

조선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초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침을 사용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녹, 청 등 푸른색의 표현이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 ‘청약립(靑蓑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라 읊은 것과 같이 많은 사대부의 시가에 사의는 청약립과 함께 등장하며 녹사의 또는 벽사의(碧蓑衣)로 표현되었다. 사초나 침 등 재료의 색에 의해 사의도 푸른색을 띠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록에 사의의 재료로 사초가 주로 언급된 것에 비하여, 현존 도롱이 유물은 부들, 벗짚, 보릿짚, 락등을 엮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배수성이 강하고 비에 잘 견디는 락[茅]였다.<sup>68)</sup> 기록에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만기요람』 중 신사의 반전 조항과 『증정교린지』의 경의노수 조항 중 각도복정 물품에 상세사(上細蓑), 숙사(熟蓑), 초사(草蓑)<sup>69)</sup>와 같이 사의의 종류가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볼 때, 재료와 섬세함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회화에 나타난 사의



<그림 7> 사립  
- 三禮圖集注 卷十八 九



<그림 8> 사립  
- 三才圖會 衣服三卷 卅二

조선시대 국왕의 모습은 어진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궁중행사를 그릴 경우에도 어좌를 통해 국왕이 그 자리에 함께 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회화 속에서 국왕이 사의를 착용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일반 회화의 화면 속 인물은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대부의 사의 착용 모습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18세기 중반 정선의 작품과 정선을 그린 그림에서 사대부의 사의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sup>70)</sup>은 정선이 이이(李珣, 1536-1584)의 고사를 바탕으로 그린 〈사문탈사(寺門脫囊: 절 문에서 도롱이를 벗다)〉이다. 정선은 이 주제로 여러 작품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 중 하나이다. 그림 뒤에 이병연이 1741(영조 17)년 겨울 정선에게 이 그림을 그려 달라고 청한 편지가 붙어 있는데, '사문탈사는 형이 익숙한 바입니다'라 하여 이이가 소 타고 눈 속을 헤쳐 절을 찾던 고사도(故事圖)를 정선이 즐겨 그렸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따라서 화면 속 소를 탄 인물이 이이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이 생전에 그린 것이 아니고 고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16세기 당시의 사의 착용 모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림을 그린 18세기 중반 사의의 형태를 따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이 생전에 이미 이 고사가 화제(畫題)로 자리 잡아 유사한 구도로 계속 그려졌다면 16세기 사의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림 10〉<sup>72)</sup>은 안견(安堅)의 영향을 받은 조선 중기 선비 화가 정세광(鄭世光)의 작품이다. 바람 부는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소재로 한 것으로 일종의 풍속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어부는 도롱이를 걸치고 있는데 〈그림 9〉의 사의와 유사하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어, 어부와 사대부의 것이 형태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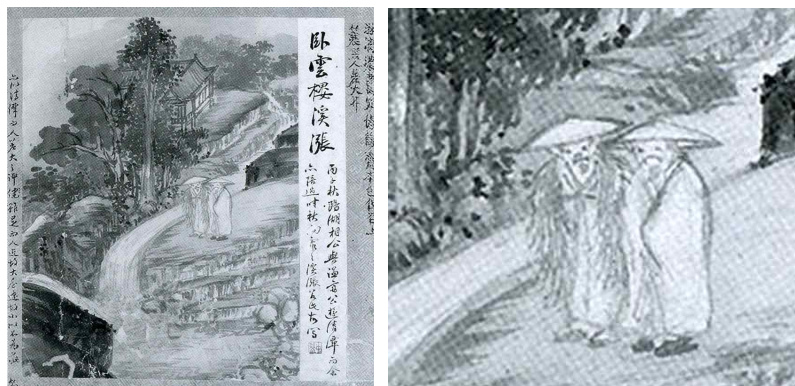
〈그림 11〉<sup>73)</sup>은 김희성의 〈와운루계곡창(臥雲樓溪漲: 와운루 계곡에 물이 불다)〉이다. 이 그림에 대해 김희성은 '병자(1756)년 가을에 구호상공(龜湖相公)과 겸재공(謙齋公)이 청담(淸潭)으로 유람할 때에 나 역시 두 분을 모시고 갔다. 당시 가을비가 내려 계곡 물이 불어남이 이와 같으므로 그린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김윤겸은 이 그림을 보고 '돌 위의 도롱이와 삿갓 쓴 사람[石上簑笠人]은 약간 크게 그렸다'고 평했다.<sup>74)</sup> 이를 통해 화면 속 인물이 구호상공과 겸재 정선이며, 두 인물 중 하나가 사의를 착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복 표면의 묘사로 볼 때 왼쪽 인물은 사의, 오른쪽 인물은 유삼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중반 비 올 때 사대부의 차림으로 사의와 유삼이 혼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9〉 사의, 정선, 사문탈사(부분)  
- 潤松文華, 66, p. 38.



〈그림 10〉 사의, 정세광, 천어도(부분)  
- <http://www.museum.go.kr>



〈그림 11〉 사의, 김희성, 와운루계창  
- 삼성미술관 Leem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II), p. 101.

#### IV. 결론

조선 전기에는 유삼 착용 기록이 드물고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조선에서 유삼이 일반화 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들어 유삼 착용자는 외국으로 파견된 사신과 그 일행, 여행자 등 사대부 계층을 비롯하여 군사에 이르기까지 착용자의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일반 상민도 유삼을 착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삼은 종이, 무명, 명주에 기름을 먹여서 치마 또는 서양의 망토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는데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물품이었다. 착용자의 신분 폭이 넓고 재료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재질에 따라 유삼 품질에 차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 유삼 착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의는 폭 넓게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의는 가난한 백성의 차림으로도 거론되나 왕실 하사품으로 신하와 외국 사신에게 주어졌고, 왕실에 바치는 진상품의 하나였다. 국왕을 비롯한 왕실 종친과 사대부들이 사의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 사의는 왕실 하사품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규정상 사의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의 대신 유삼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까지 사의를 진상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으나, 19세기 중반 사신을 맞이

하는 공식행사에서 사의 대신 유삼을 착용하도록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아 사의 착용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회화에 표현된 사대부의 사의 착용 모습이 어부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록에 나타난 사의와 현존 유물의 재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삼과 마찬가지로 품질에 차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사의 착용 비중이 줄어들고 반대로 유삼 착용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을 추측해 보면, 먼저 중국 유삼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고씨화보』로 미루어보아 명나라의 우의도 치마, 망토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란 당시 명나라 군사들이 착용한 것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망토형은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발견되므로 형태적 유사성만으로는 영향의 증거가 되지 못하나, '유의, 유삼'이라는 명칭의 동일성, '유견, 유지'라는 재료의 유사성을 볼 때 중국 유삼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경문화의 발달로 사대부의 여행 빈도가 늘어나면서, 도롱이보다 부피가 작거나 착용이 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17세기 중반 사의에 비해 가볍고 편하고 견고한 중국 유삼의 장점을 언급한 『전객사일기』의 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삼의 경우 제작기간이 길고 고가이므로 사의 착용도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착용한 우의를 살펴본 결과 17세기 중반을 즈음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면에서 소박하여 농어민의 복장이었을 것으로 보았던 사의를 조선 초·중기 왕실과 사대부 계층에서도 착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의는 조선 중기 이후 유삼이 발달하며 비중이 줄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노동복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우의 착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대별 장면 재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2권*, 서울: 어문각, p. 2079, p. 3239.
- 2) 박춘순 (2004), 중국 고대 우의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pp. 617-623.
- 3) 박선희 (2011), *18세기 이후 통신사 복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84-190.
- 4) *Ibid.*, p. 185.
- 5) *中宗實錄*, 16년(1521) 6월 19일, *仁祖實錄*, 5년(1627) 2월 12일.
- 6) *典客司日記*, 第 5, 효종 2년(1651) 8월 16일.
- 7) 박춘순, *op. cit.*, pp. 620-621.
- 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卷之一, 숙종 38년(1712) 11월 17일,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9) 金正中, *燕行錄*, 燕行日記, 上伯氏書,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10) 申維翰, *海游錄*, 附 聞見雜錄,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11)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영조 24년(1748) 5월 8일, 6월 1일,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12) 徐榮輔, 沈象奎(1808), *萬機要覽*, 財用編五, 信使, 盤纏; 金健瑞, *增正交隣志*, 卷之五, 志, 京外路需.
- 13) *承政院日記*, 숙종 36년(1710) 윤7월 25일.
- 14) *備邊司謄錄*, 숙종 45년(1719) 12월 22일.
- 15) *日省錄*, 정조 2년(1778) 윤6월 6일.
- 16) *Ibid.*, 정조 17년(1793) 11월 20일.
- 17) 徐榮輔, 沈象奎, *op. cit.*, 軍政編二, 附 龍虎營, 軍兵器械; 軍政編二, 附 龍虎營, 軍器; 軍政編二, 訓練都監, 軍器; 軍政編三, 禁衛營, 軍器; 軍政編三, 摠戎廳, 軍器.
- 18) *日省錄*, 정조 8년(1784) 3월 25일.
- 19) *正祖實錄*, 19년(1795) 윤2월 22일.
- 20) *高宗實錄*, 19년(1882) 6월 10일.
- 21) 지규식 (2007), *荷齋日記* 二, 이종덕 역,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 73.
- 22) 本間九介(1894), *조선잡기*, 최혜주 역, 파주: 김영사, p. 88.
- 23) 신병주 (2011), *조선평전*, 파주: 글항아리, p. 433.
- 24)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서울: 가람기획, pp. 415-416.
-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一, 蟲葉記 八, 笠弊.,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26) *正祖實錄*, 19년(1795) 윤2월 22일.
- 27) 井筒雅風 (1983), *原色日本服飾史*, 東京: 光琳社, pp. 230-231.
- 28) *Ibid.*, pp. 230-231.
- 29) 박선희, *op. cit.*, p. 186.
- 30) *景宗實錄*, 2년(1722) 4월 20일.
- 31) 洪大容, *滄軒書*, 外集 卷八, 燕記, 沿路記略, 자료검색일 2010. 5. 14, <http://db.itkc.or.kr>.
- 32) 박선희, *op. cit.*, p. 186.
- 33) 농촌진흥청 (2004), *고농서국역총서6 증보산림경제*, 수원: 농촌진흥청, pp. 310-311.
- 34) 온양민속박물관 (2005),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p. 102.
- 35) 송희경 (2001), 조선시대 기려도의 유형과 자연관, *미술사학보*, 15, pp. 15-23.
- 36) 顧炳 (1603), *顧氏歷代名人畫譜*: 顧氏畫譜 第4冊.
- 37) 한정희 (1999), *한국과 중국의 회화*, 서울: 학교재, p. 230.
- 38) 호암미술관 (1998), *조선후기국보전*, 서울: 삼성문화재단, p. 35.
- 39) 송희경, *op. cit.*, pp. 21-22.
- 40) 최완수 (2007), 우암(尤庵) 당시의 그림과 글씨, *濶松文華*, 72, p. 118.
- 4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4), *濶松文華*, 66, p. 41.
- 42) *Ibid.*, p. 143.
- 43)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5), *濶松文華*, 68, p. 111.
- 44) 박선희, *op. cit.*, p. 189.
- 45) *世宗實錄*, 29년(1447) 윤4월20일; *世祖實錄*, 11년(1465) 2월21일; *光海君日記*, 5년(1613) 6월 13일; *英祖實錄*, 36년(1760) 7월 19일.
- 46) *世宗實錄*, 4년(1422) 3월 1일, *世祖實錄*, 3년(1457) 5월 10일, *睿宗實錄*, 1년(1469) 4월 14일, *成宗實錄*, 4년(1473) 6월 13일, 6년(1475) 8월 6일, 10년(1479) 12월 24일, 20년(1489) 9월 21일, 21년(1490) 9월 9일, 22년(1491) 8월 18일/24일/28일, 9월 4일/6일, *燕山君日記* 9년(1503) 7월 13일; *中宗實錄*, 4년(1509) 4월 29일/6월 9일, 7년(1512) 6월 17일.
- 47) *世祖實錄*, 3년(1457) 4월 23일, 5년(1459) 6월 28일, 11년(1465) 6월 1일; *中宗實錄*, 33년(1538) 4월 20일.
- 48) *世祖實錄*, 10년(1464) 6월 6일.
- 49) *世祖實錄*, 2년(1456) 5월 21일, 3년(1457) 5월 11일/6월 15일, 5년(1459) 3월 15일, 10년(1464) 6월 10일, 13년(1467) 9월 14일/10월 9일, 14년(1468) 4월 12일/7월 13일; *成宗實錄*, 1년(1470) 5월 25일, 7월 7일/18일, 7년(1476) 2월 10일, 10년(1479) 윤10월 2일/12일, 12년(1481) 8월 3일/11일, 14년(1483) 8월 11일/27일, 10월 2일, 25년(1494) 12월 7일.
- 50) *世祖實錄*, 9년(1463) 9월 26일.
- 51) *世宗實錄*, 2년(1420) 3월 3일; *燕山君日記*, 9년(1503) 7월 13일.

- 52) 太宗實錄, 13년(1413) 6월 28일.
- 53) 宣祖實錄, 36년(1603) 5월 25일/27일.
- 54) 中宗實錄, 37년(1542) 5월 12일.
- 55) 宣祖實錄, 36년(1603) 5월 27일.
- 56) 世宗實錄, 14년(1432) 7월 5일; 文宗實錄, 1년(1451) 11월 24일/25일.
- 57) 世祖實錄, 10년(1464) 5월 17일.
- 58) 成宗實錄, 2년(1471) 4월 27일.
- 59) 中宗實錄, 7년(1512) 5월 10일, 37년(1542) 5월 12일.
- 60) 世宗實錄, 27년(1445) 7월 11일; 世祖實錄, 3년(1457) 6월 22일.
- 61) 卞季良, 春亭集, 卷一 詩, 十三 - 十四, 자료검색일 2012. 9. 1, <http://db.itkc.or.kr>.
- 62) 英祖實錄, 30년(1754) 8월 24일; 高宗實錄, 31년(1894) 9월 15일.
- 63) 備邊司謄錄, 현종 10년 2월 17일.
- 64) 英祖實錄, 41년(1765) 3월 25일, 43년(1767) 2월 29일 /5월 2일.
- 65) 聶崇義, 三禮圖集注 卷十八 九.
- 66) 王圻(1607), 三才圖會, 衣服三卷 卅二.
- 67) 박춘순, *op. cit.*, pp. 618-619.
- 68) 인병선 (1991), *폴문화*, 서울: 대원사, p. 40.
- 69) 徐榮輔, 沈象奎, *op. cit.*, 財用編五, 信使, 盤纏; 金健瑞, *op. cit.*, 志, 京外路需.
- 70)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4), *op. cit.*, pp. 139-140.
- 71) *Ibid.*, pp. 139-140.
- 72) 자료검색일 2012. 9. 1,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Detail.jsp?menuID=001005002001&relicID=1107&relicDetailID=4425>
- 73) 삼성미술관Leeum (2008),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II)*, 서울: 삼성문화재단, p. 101.
- 74) *Ibid.*